

SUPER GiSELE

지젤 번천 테리 리처드슨
그리고 더블유만의 슈퍼 화보!

Hello bae bae

박진영과 여자들
지드래곤과 태양

SUMMER'S HERE!

지금은 찬란한 여름을 끌어안을 시간!
더블유가 서머 스타일의 정석을 쿨하게 정리한다

FESTIVAL QUEEN

음악 페스티벌 현장에서
누구보다 당신을
빛나게 해줄 스타일링

트렁크를 부탁해
자연을 품은 휴양지,
도심의 휴가...
휴가지에 최적화된
극과극 여행 패션

새콤달콤
오감으로 과일을 느끼다!
맛있는 뷰티 아이템들

미래의 목소리를
들어라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로
모여든 현대미술의 스타들,
그리고 쟁점들

JUNE 2015
더블유 한국판
통권124호
6,000원

www.wkorea.com

ISSN 1739-5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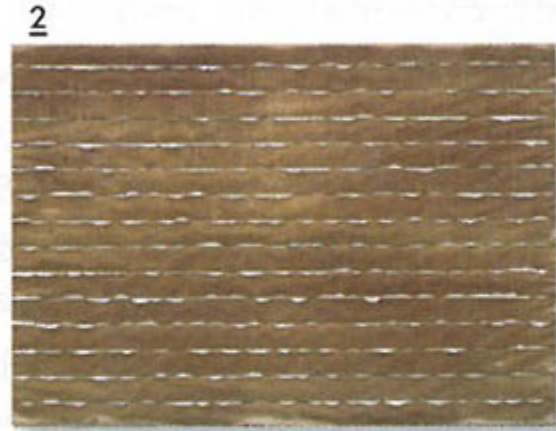
9 771739 511006

미래의 목소리를 들어라



VENICE

1. 한국 국제 갤러리가 주최하고 벨기에 보고시안 재단이 협력한 단색화 전시가 열린 팔라초 콘타리나-폴리냐의 전경.
2. 두터운 물감이 캔버스 뒷면에서 배어나오는 하중현 '접합' 1974,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작품.
3. 박서보 '묘법 No. 89-79-82-83' 1983. 마대에 연필.
- 4, 5, 6. 이우환의 작업은 70년대 회화부터 장소특정성을 실려 새로 작업한 설치까지 포함되었다.



베니스의 단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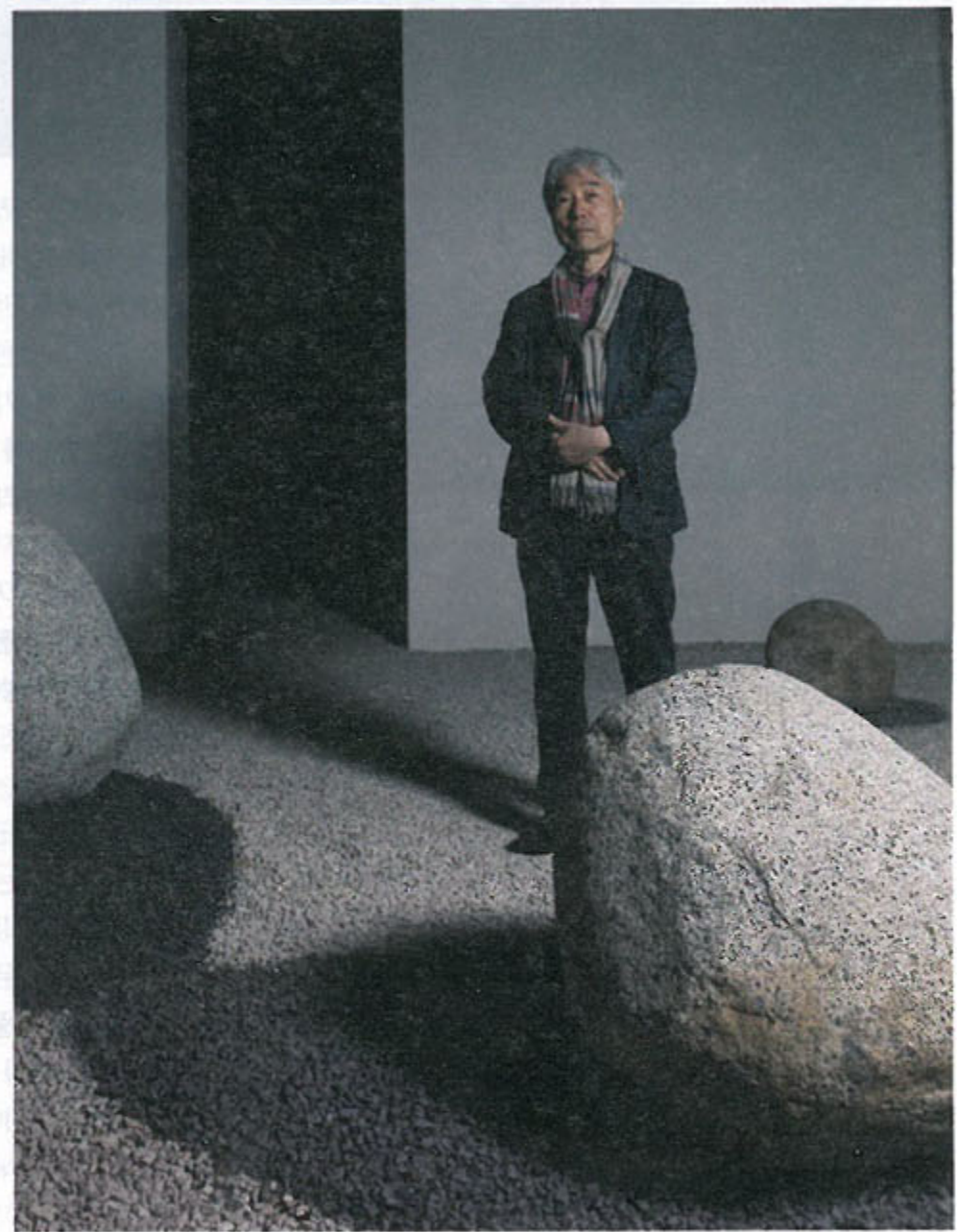
지금 한국 미술계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베니스 비엔날레로 갔다. 시장에서 커지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세계 미술계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안을 들여다보게 된 바로 단색화 얘기다.

"저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면 되죠?" 팔라초 콘타리나-폴리냐에 전시를 보러 온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 전시의 제목인 '단색화(Dansaekhwa)'의 우리말 발음을 궁금해하는 것이다. "한국어로 한 색깔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완전히 한 컬러만 쓰진 않은 그림도 있지만, 1970년대부터 흐름을 이룬 단순한 추상화죠." 비엔날레 기간 동안 베니스에는 본전시와 국가관 전시 외에 도시 곳곳에서 다양한 병행전이 열리는데, 단색화 전시도 이 가운데 하나다. 열심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그들이 박서보의 푸른색 회화를 이브 클랭과는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일지 내심 궁금했다. 서구 모노크롬이 회화 영역을 갈 데까지 탐색한 이후 더 이상은 없다는 선언이었다면, 70년대 한국 추상미술의 경향인 단색화는 절제된 색 속에 반복적인 리듬, 풍부한 질감을 담고 있는 일련의 회화를 일컫는, 조금 다른 세계다. 동시대와 직후에는 '한국 미니멀리즘' 또는 '코리아 모노크롬 페인팅' 등의 용어로 불리다가 '단색화'라는 고유명사로 이름을 정리한 것은 2000년대 미술 비평계가 한 일이다. 뒤늦게 정리된 이 명명 자체를, 한국 미술이 미학적으로 스스로의 역사를 돌아보고 따로 세계 된 의미로도 볼 수 있겠다.

대운하를 면한 15세기 저택인 팔라초 콘타리나-폴리냐의 공간은 단색화 작가들의 페인팅 작품뿐 아니라 단색화의 태동 시기 및 배경에 대한 역사적 배경 이해를 돕는 자료와 서적, 작가들의 토론이 담긴 영상물에 고루 할애되었다. 이번 베니스 단색화 전시에서 소개하는 작가들은 고 김환기, 권영우부터 박서보, 이우환, 정상화, 정창섭, 하중현 등 한국의 주요 중견 작가들을 아우른다. 2층에는 단색화의 전성기인 70~80년대 회화 작품들, 그리고 3층에는 비교적 최근작을 걸어둔 배치는 단색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시간차를 두고 표현과 조형의 진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건물 외부의 길, 그리고 운하와 연결하는 지층의 마당 공간에는 흰 벽으로 공간을 구획하고 이우환 작가의 '다이얼로그', '관계 항' 시리즈를 들여놓았다. 장소특정적인 설치 작업을 하는 이우환은 베니스의 오래된 벽과 낡은 바닥에 돌을 놓고, 그림자를 칠하고, 여백을 만들고, 또 면을 채웠다. 올해 비엔날레는 페인팅이 거의 증발해버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미디어들로 가득했다. 한국관의 문경원, 전준호 작가도 HD 영상 인스톨레이션을 선보였으며 은사자상을 받은 임흥순 역시 다큐멘타리를 찍었다. 설치, 영상, 사운드 아트, 퍼포먼스가 주류를 이룬 베니스에서 전통 회화, 그것도 70년대 회화를 만나는 단색화 전시의 기획은 관광객들에게 같은 도시 안에서 확연한 시차를 느끼게 하는 경험이자 자연스럽게 반사적인 신선함을 느끼게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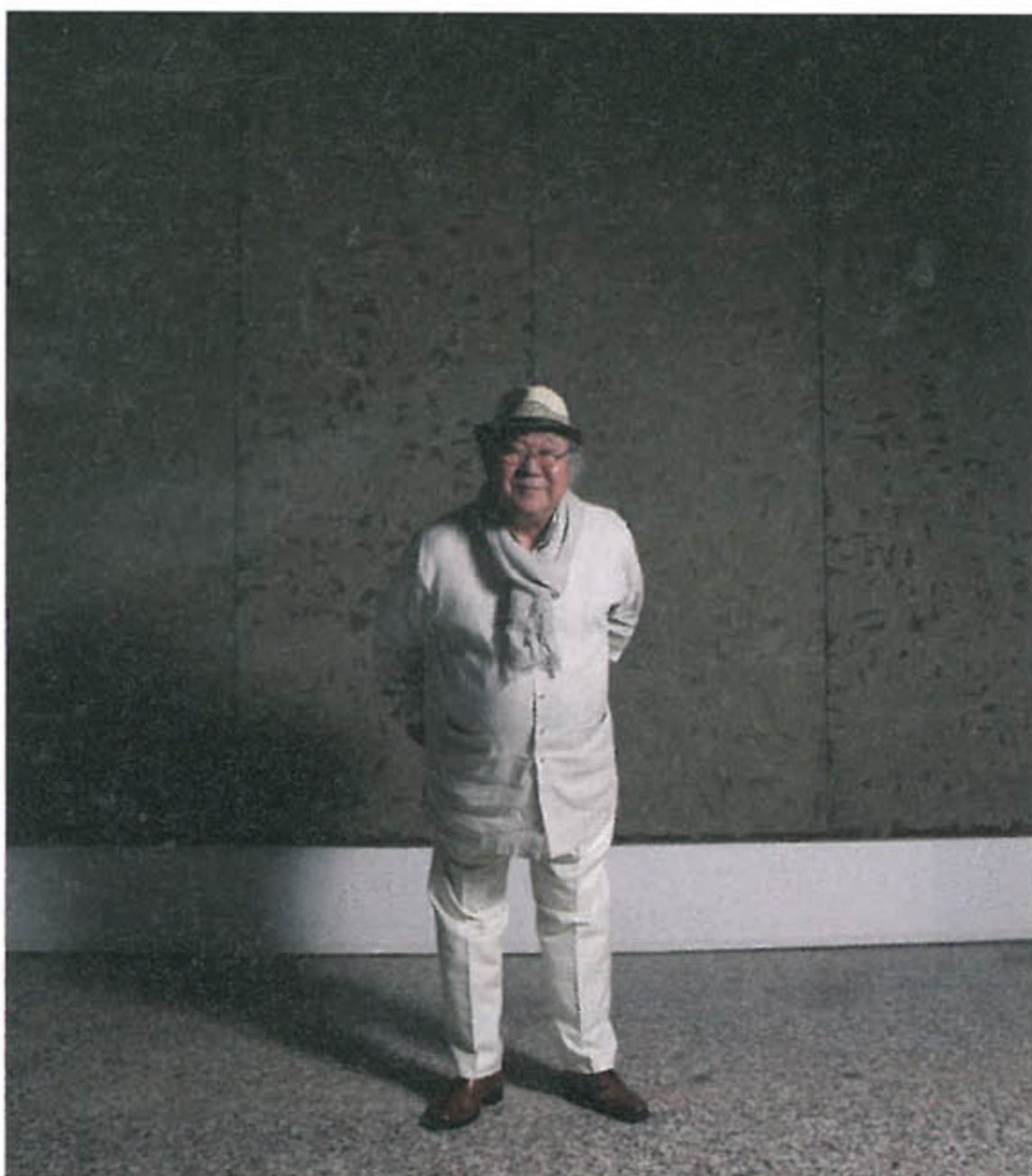
● 이우환

이우환에게 단색은 하늘의 푸른색, 땅의 주황색, 돌의 빛깔처럼 자연에서 온 뉴트럴한 것이다. 이우환이 캔버스에 찍는 무수한 점과 여백 사이의 긴장과 겨룸, 관계는 그의 회화를 열린 명상의 장으로 만든다. 일본으로 일찍 건너간 그는 60년대 모노하 운동의 이론과 실천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아티스트지만 한국의 단색화를 해외 사조의 모방이라 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으며 현대사 속의 맥락과 저항정신을 언급한다. "공공 얼어붙은 군사독재의 시대,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작가들이 할 수 있는 시도란 표현 아닌 표현이 되었어요. 서구 미술의 역사 속에서는 해체되는 과정, 크게는 모노크롬이라는 틀 안에서 다시 회화가 가진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단색화의 중요성이 있다고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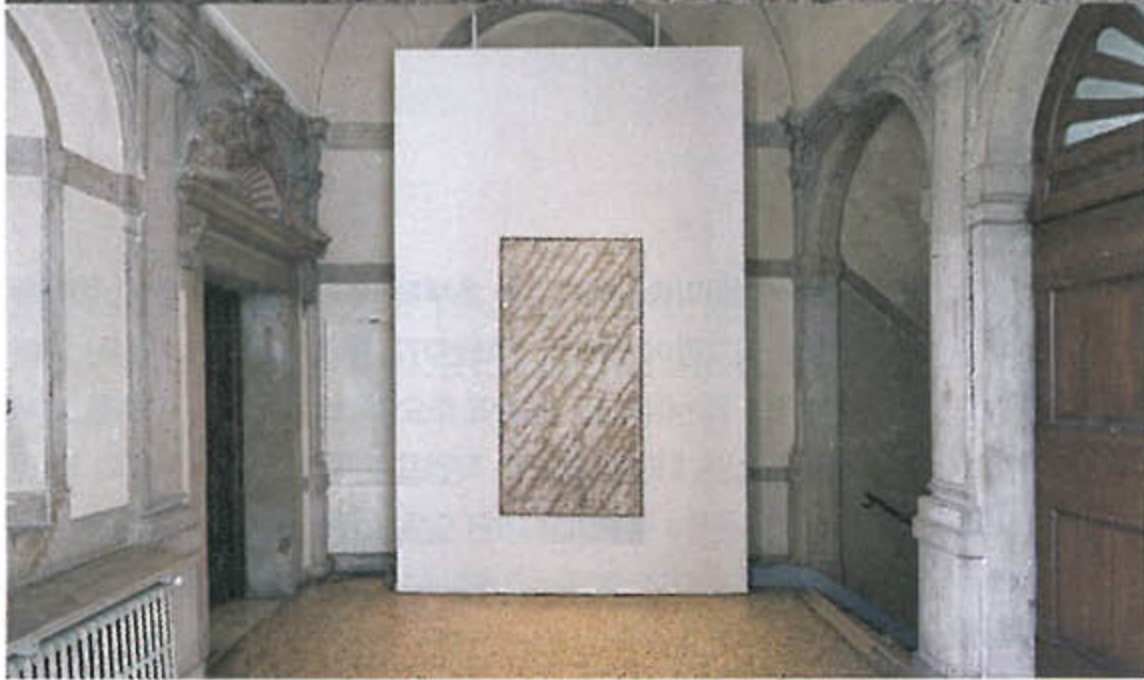
● 박서보

"동시대에 서로 다른 도시들에서 벌어진 한국 단색화를 돌아보고 그 테두리를 설정해본다면 기본은 행위의 무목적성, 그리고 반복성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작가의 몸이 하는 행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재료의 물성과 정신의 합일을 도출하는 거죠." 불교 철학의 영향이 느껴지는 해석을 내리는 박서보 작가에게 캔버스는 수신의 도구이자 수행의 장이다. 또한 단색화는 과거완료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지금 각광받는다는 해서 7, 80년대로 회귀하는 건 작가 자신이나 한국 미술이나 경계해야 할 일이에요. 멈춰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산불리 변하려 해도 망하지만, 언제나 적당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 하종현

결핍은 아티스트에게 때로 한계가 되기보다 창의성을 촉발한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던 70년대 청년 작가 시대에 대한 하종현의 회고 역시 그렇다. 캔버스가 부족해 미군의 보급 식량을 담은 마대를 쓰고, 그나마도 모자라 폭이 넓은 작품은 제작하지 못했다. 철사로 엮어낸 하종현의 작품에는 억눌린 에너지가 도사리고 있다.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 작가는 이번 베니스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싶다고도 했다. “한국 젊은이들의 작품들이 베니스를 비롯한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단색화를 통해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뿌리에 대해 이해하고 평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전시의 기획자이자 베니스 비엔날레 심사위원이기도 한 큐레이터 이용우는 국내 미술계에서 다시 큰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단색화 전시를 특별히 2015년의 베니스라는 장소에서 세계에 내놓는 의미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세계의 모든 미래”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올해 비엔날레는 ‘미술’이라는 단어가 좁게 느껴질 정도로 다양한 시각 문화 현상을 포괄하고 있어요. 혼성 미디어, 첨단 설치, 퍼포먼스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 장르가 벌어지는 이 복합적인 현대미술의 현장에 단색화가 함께 존재함으로써 한결 힘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 표현의 결과로서는 한없이 고요하지만 그 안에 인고의 역사, 저항의 에너지가 끓어 넘치는 게 단색화니까요.”

이우환 작가는 서구 모노크롬이라는 큰 틀 안에서 회화의 가능성을 다시 제시한 것이 단색화라 보는 반면 박서보 작가는 비교를 아예 거부한다. 오히려 그에게 단색화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한 아티스트의 내적 수행의 의미가 강하다. 간결하고 단정한 단색화 캔버스를 마주하고 있으면 발견하게 되는 규칙성의 리듬, 고요함 가운데 숨은 격렬한 에너지 뒤에는 바로 이런 작가의 행위가 내재할 것이다. 어떤 정의가 옳고 그르다기보다 단색화가 지닌 다양한 얼굴 가운데 각기 다른 면을 작가들마다 자신의 관점으로 주목하고 있는 셈이다.

5월 7일 밤, 비엔날레 공식 개막을 이틀 앞둔 저녁의 베니스는 곳곳에서 전시 오프닝과 작가나 갤러리 주최의 파티가 열렸다. 팔라초 콘타리나-폴리냐 앞의 승선장에서조차 부지런히 보트가 오가며 해외 큐레이터와 컬렉터 등 VIP들을 실어 날랐으며, 김환기와 이우환, 하종현과 박서보의 그림이 걸린 전시장 안에는 테이블과 의자, 꽃과 촛대가 줄줄이 들어와 갈라디너를 준비했다. 대담하고 반복적으로 선을 그어 이은 박서보의 작품, 거친 마대 사이로 두툼하게 물감이 밀어져 나온 하종현의 그림 표면의 촉감이 낮은 조도의 촛불 뒤로 생생하게 살아났다. 의자 뒤로 안은미의 퍼포먼스가 지나가며 파티의 흥이 절정을 향해 갈 때 또 한번 질문을 받았다. “그래서 저 단어의 한국 발음은 어떻게 되죠?” 파티의 호스트였던 국제갤러리 이현숙 회장의 딸인 뉴욕 티나킴 갤러리의 티나킴 대표가 갈라 중간에 잔을 들고 건배 제안을 위해 걸어 나왔다. 마지막 두 마디를 예상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단색화를 위하여.” ■

단색화 전시 오프닝에는 국내외 유력 미술 전문가들, 컬렉터, 아트 딜러, 아티스트들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에디터 | 황선우



1. 르 콘소시움의 공동 디렉터 프레드 프랑크 고테로와 김승덕 2. 스미소니언 허쉬혼 미술관의 엘리사 치우 디렉터 3. 단색화 전시장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은 만찬장. 4. 애들린 우이 홍콩 아트 바젤 디렉터 5. 컬렉터인 오르텐시아 & 잔갈레이초 비스콘티 디 모드리네. 6. 현각 스님, 국제 갤러리 찰스킴 대표, 배우자인 송보영 7. 루이스 부르주아 재단의 디렉터 제리 고로보이, 컬렉터 다이애나 타엔다로바 8. 가운데에 선 가구 딜러 정재웅과 컬렉터 니나 & 게리 웨스너 부부. 9. 뉴욕 티나킴 갤러리 대표와 그녀의 컬렉터 친구들. 10. 무용가 안은미의 축하 퍼포먼스 11. 큐레이터 김선정 12. 페이스 갤러리 디렉터 에밀리 제인 키르완, 아티스트 아니쉬 카푸어, 이용우 베니스 비엔날레 심사위원 등이 모여 환담을 나눴다.